

## 2. 묘는 햇볕으로 건강해 진다

### 아오키(靑木)씨

이바라키(茨城)縣

#### 여름에는 노지에서 햇볕을



▲ 아오키씨의 노지육묘, 양상치묘

아오키씨는 작년 이상기후로 육묘의 중요함을 많이 느꼈다. 한여름에 정식하는 양상추는 “정식한 묘가 무더위로 고사하였다”는 농가가 많았지만, 아오키씨의 묘는 100% 수확을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육묘에 있다고 아오키씨는 생각하고 있다.

양상추의 육묘는 보통 하우스에 이루어지지만, 아오키씨는 철저하게 노지육묘를 하고 있다. 한여름의 강한 햇볕을 받으면 묘가 웃자라지 않고 튼실하게 자란다.

“웃자람은 질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햇볕이 부족한 원인이 크다”

그리고 무더위에 적응한 묘는 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한 밭에 심어도 적응력이 좋다.

노지육묘는 높이 15cm 정도의 단 위에 철제파이프는 레일과 같이 깔고 트레이를 펼치는 방법. 비가 올 때는 비닐로 터널을 만들어 주어야하기 때문에 급하게 비가 오면 빨리 덮어야 한다. 시간과 노동이 투입되어도 튼실한 묘를 기르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직사광선을 쬐고 싶다고 아오키씨는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녹는 묘”와 “수확할 수 있는 묘”의 차이이다.

#### 봄에는 하우스에서 햇볕을

한편, 이른 봄 쌀쌀한 시기에 심는 경우도 햇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육묘하우스 안에서 아침햇살을 받는 장소에 묘판을 둔다. 양상추는 특히 아침햇살을 좋아하여 아침햇살을 많이 받으면 웃자라지 않고 잎이 두꺼워지고 튼실한 묘가 된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환기를 시켜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육묘는 저온장애에 강하고,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다.

“노지채소는 육묘로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육묘시기에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 상토

상토(육묘배토)는 채로 친 흑토에 채로 친 왕겨퇴비와 재를 혼합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구아노(유기인산비료)가 있다면 적당량을 첨가한다.

재는 필수로 웃자람을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어느 해 재를 제외하고 상토는 만들었을 때 양상추의 포트묘가 웃자람이 심하였다. 다시 재를 혼합하였더니 웃자람이 사라져 그 효과를 실감하였다.

콩류의 육묘에는 기름져야 하므로 하천의 모래에 재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 상토재료 : 흑토(16자루), 왕겨재, 왕겨퇴비, 구아노 약간(없어도 됨)